

# 고즈넉한 산사에서 인생의 '짝' 찾아요

### '산사의 싱글파티' 이색 템플스테이 마련 고양시 흥국사, 11월까지 월 1회씩 6회 진행

“결혼 적령기에 남자가 만나 결혼관을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여·30세)

“지친 마음을 채우며,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스님의 독경과 특강이 마음 속 찌든 때를 정화해 줘 삶의 활력을 얻어 가는 것 같다.” (정○○·남·33세)

치솟는 물가와 집값, 취업난, 무한경쟁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를 포기한 세대라 불린다.

상담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연인·부부간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결혼관에 대해 설명했다.

황수경 교수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한다”며 “사랑하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의 내·외적인 조건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픔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사랑할 때는 서로 잘나고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감사



6월 16~17일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산사의 싱글파티'에서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는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마음의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나눔'을 주제로 강연했다.

었다. <보왕삼매론>의 '마음다스리는 글'을 들려준 대오 스님은 “참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 상대방의 가치도 발견해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 참나를 깨닫으면 궁극적으로 지혜·자비심을 키위 모든 인연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결혼과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참나를 찾는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가자의 대다수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진(남·33)씨는 “불교는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울산에서 왔다. 사랑과 심리에 관한 특강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효은(여·31) 씨는 “좋은 사람을 만

나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는데 스님의 법문과 특강을 들으며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위로도 받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도 가져 더 많이 얻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첫 선을 보인 '산사의 싱글파티'는 젊은이들과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기가 좋아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는다.

대오 스님은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산사의 싱글파티가 종교를 초월해 젊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불교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9번째 행사는 7월 12~13일 흥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23-5101

고양 흥국사=이은은 기자

# 노숙인들, 산사에서 소통하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백담사에서 노숙인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주년 사업 일환으로 6월 18~20일 인제 백담사에서 노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그리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 18~20일까지...10주년 사업 일환

사회 소외계층인 노숙인들이 산사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6월 18~20일 2박 3일간 강원 인제 백담사에서 노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소통 그리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사회통합과 치유'라는 취지 하에 서울시와 서울시립노숙복지시설 '보현의집'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가 열리는 백담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위해 '심리극(연극치료)'과 '가족 세우기'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첫째 날 진행되는 '심리극'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상실감과 소외감에 빠진 문제들을 수용하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진행된 '가족 세우기'는 자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관계가 단절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족의 존재감과 역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2박3일간 예불과 참선, 108배, 배우공양, 윤력, 지혜명상, 3보 1배 등 사찰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법진 단장스님은 “올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목적 아래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은 앞으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템플스테이 체험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 스마트폰으로 '법화경' 듣고, 보고

### '우리말 법화삼부경' 어플리케이션 출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법화경'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어플은 운주사에서 출판된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번 어플이 한 재가 불자에 의해서 제작됐다는 점이다. 안진보(연동산업 대표·44)씨는 혜조 스님이 만든 '법화삼부경 MP3'를 듣고 '법화경' 어

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안 대표는 “'법화삼부경'은 인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혜조 스님이 현대인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어플을 제작하면서 기술적·재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고백했다. 원력을 세우고 어플로 제작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안 대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불교콘텐츠

연구개발 모임 미디어우빠야(회장 김영수)와, (주)다나나의 최대종 대표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어플은 (주)도프도프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주)다나나 디자인을 담당했다. 현재 어플은 안드로이드용이지만 제작돼 아이폰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 라이트 버전에서는 '서품'만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안 대표는 “점차 플레이스토어나 앱마켓에서 구입해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화경' 어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란다”며 “이번 계기로 더 많은 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플로 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청소년 위한 선禮 명상 테라피

### 7월 22일부터, 골굴사 화랑 수련회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심신치유를 위한 선(禪) 명상 테라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화랑 사관학교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화랑 수련회를 7월 22일~8월 25일 개최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학생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해 심신 안정을 도와준다. 프로그램은 선요가, 선무술, 선기공, 선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화 하고, 불교 강의와 호신술, 승마, 궁궁수련, 108배, 윤력 등으로 인성함양을 고취시킨다. 또 다도, 난타, 판소리, 춤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 강사 직접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와 성지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약해진 마음을 다스려 건강한 삶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775-1689 이은정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宗 정 흥 산 현 불  
총무원장 자 랑

≡ ≡ ≡ **입종안내** ≡ ≡ ≡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사암 사진 (안·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 큰스님의 법성계 친필휘호 보급 안내**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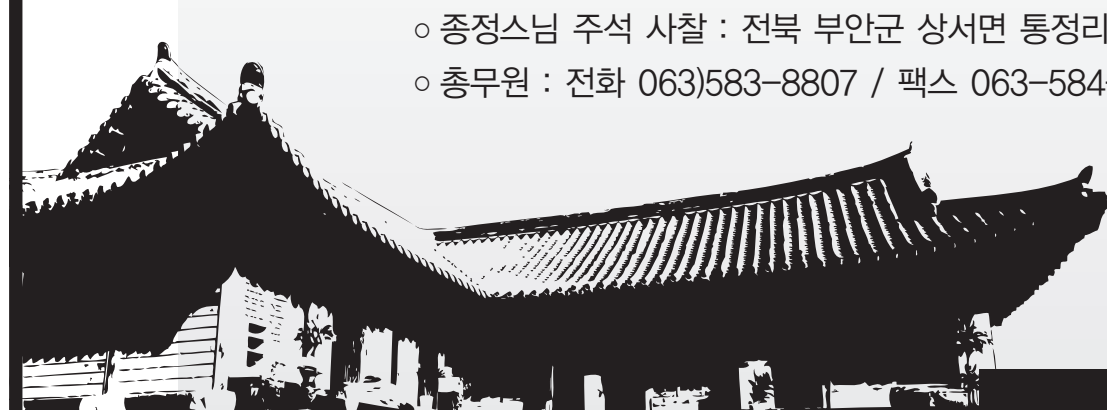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계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계 휘호는 신묘한 기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cm  
법성계 38×14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